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대명
광양보건대학교

Th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professors' core competency,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and life competencies

Dae-Myung Kim

Dep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전국 7개 대학의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생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생애역량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기반으로 생애역량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수, 핵심역량, 대학생, 인지역량, 생애역량

Abstract The subjects were 500 college students in 7 provincial areas for th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professors' core competency,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and life competencies. The statistical method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long learning educators' college students recognized core competency significantly affects on the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Second, the lifelong learning educators' core competency significantly affects on the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Third, the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significantly affects on life competencies. Fourth, the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lifelong learning educators' core competency and the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In other words, the lifelong learning educators' core competency based on the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has great effect on life competencies.

Key Words : Professor, Core competency,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Life competencies

Received 26 April 2017, Revised 31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Dae-Myung Kim
(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Email: dmkim@gy.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현상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핵심역량과 인지역량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자료를 탐색, 각색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 등이 대학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세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1]. 이러한 역량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학의 교수는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함양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통해 고등교육 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교수설계역량, 수업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평가역량 등의 핵심역량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은 인지역량 등 학습방법 및 태도와 관한 역량을 갖도록 경주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인지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회에서 경쟁력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애역량은 개인이 생애를 통하여 키워야할 능력이다[2].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 향상과 고등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향상되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이 인식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은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교수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로서 교수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요인연구 즉, 교수의 교수역량모델 개발[3] 연구와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능력, 리더십이 대학생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4]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은 중요한 변수임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생애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수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인지역량과 생애역량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서 대학생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생애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매개로 생애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수의 핵심역량

EU(2001)는 역량을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 능력, 노후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하였으며[5],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에 의하면, 21세기 교수의 핵심역량 즉 기본소양 영역으로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사회적 능력, 유연성, 테크놀로지리터러시, 윤리의식, 열정 등이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영역이 된다. 대학교육의 질이 교수학습과정의 질이라는 관점[6,7]에서 교수역량은 대학교육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할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교수역량 개발의 차원에서 역량모형을 개발했다[8].

임우섭(2007)은 교수의 핵심역량을 고등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우위를 갖고 고등교육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교수, 지원, 촉진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교수의 핵심역량 즉, 교수설계역량, 수업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평가역량을 고등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2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

1997년에 시작된 OECD 지원 프로젝트(OECD, 2003)에서는 인지역량을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학습역량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9].

인지역량이란 학습자가 개인적·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현장에서 당면한 과제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복합적 능력으로서 학습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과 학습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범교과 차원의 인지역량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 대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의 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을 중요한 인지역량으로 다루고 있다 [10]. 이러한 인지역량이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면 요구되는 것은 대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학습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전략으로서 인지역량은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인 것이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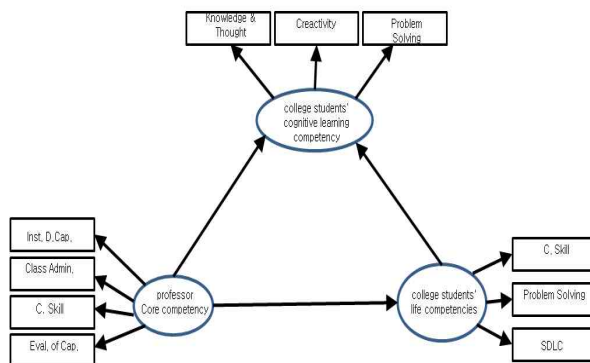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에서 제시한 핵심 인재상에도 지적능력, 관계능력, 감성능력, 적응능력,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그리고 인지적 학습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인지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경화 외(2011)에 의해 학습역량의 개념이 크게 학습동기 영역, 학습행동 영역, 인지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인지영역 즉 인지역량은 다시 지식과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규명한 생애역량과 관련된 필요 요소에도 인지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애역량은 삶의 다양한 과정과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인성 등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삶에서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과업 및 이에 따른 능력의 수준이나 정도가 다르므로 생애 단계에 따라 생애역량을 이루는 요소는 달라지게 된다[12].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적 학습능력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교수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영역으로 교수설계역량, 수업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평가역량 등 4개의 측정변인을, 대학생의 인지역량의 하위변인은 지식과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등의 3개의 측정변인을, 대학생의 생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 3개의 측정변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7개 대학의 대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교수의 핵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매개변인으로, 생애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4.2.1 교수의 핵심역량

교수의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임우섭(2007)의 교수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 척도 즉, 교수설계역량 4문항, 수업관리역량 7문항, 의사소통역량 6문항, 평가역량 3문항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교수설계역량이 .947, 수업관리역량이 .943, 의사소통역량이 .942, 평가역량이 .92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교수설계역량 4문항, 수업관리역량 7문항, 의사소통역량 6문항, 평가역량 3문항, 총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13].

4.2.2 대학생의 인지역량

대학생의 인지역량 측정도구는 이경화 외(2011)가 개발한 성인용 학습역량 검사(CLT-CMB) 척도를 선정하였다. 인지역량은 지식과 사고 12문항, 창의성 12문항, 문제해결 10문항 모두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에 포함된 인지영역의 요인별 내용과 문항수 및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51로 지식과 사고가 .910, 창의성이 .937, 문제해결이 .8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사고 12문항, 창의성 12문항, 문제해결 10문항 총 34문항, 총 34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14].

4.2.3 대학생의 생애역량

생애역량에 대한 측정은 이석재 외(200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의사소통능력 48문항과 문제해결능력 45문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45문항으로 문항 수는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4로 의사소통능력이 .799, 문제해결능력이 .83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833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영역 24문항과 문제해결능력 영역 26문항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영역의 21문항으로 총 138문항 중 71문항을 사용하였다[15].

4.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한 관련 이론들을 근거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전국 7개 대학의 대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 17.0을 사용하였으며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질문지 520부를 모두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0부의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50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SPSS 18.0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AMOS 1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5. 연구 결과 및 해석

5.1 측정변인 간의 기술통계분석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Table 1>과 같다. 변인들의 평균값은 중앙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왜도는 표준지수로서 절대 값이 3.00을 넘지 않으며 첨도는 표준지수로서 8.00을 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상분포를 잘 가정하고 있다.

<Table 1> Mean, SD, Ske., Kur. of M. variable (n=500)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M	SD	Ske.	Kur.
professor core competency	Inst. D.Cap.	3.528	.721	-.146	.245
	Class Admin.	3.692	.584	.586	-.317
	C. Skill	3.418	.682	-.293	.760
	Eval. of Cap.	3.466	.782	-.191	.269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Know. & Thought	3.828	.467	.553	.177
	Creativity	3.410	.656	.101	.013
	Problem Solving	3.300	.655	.230	.064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C. Skill	3.580	.618	-.198	.211
	Problem Solving	3.547	.612	.027	.748
	SDLC	3.661	.695	-.14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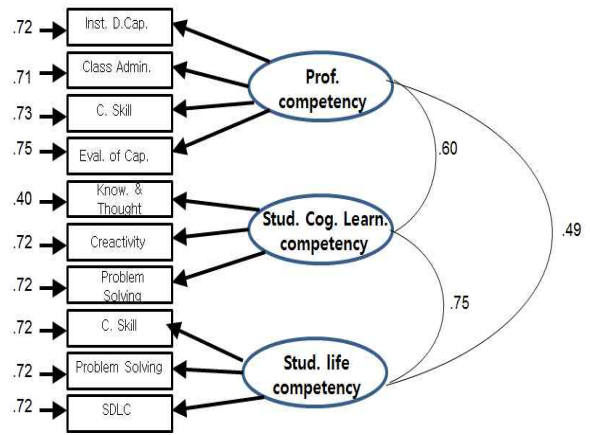
5.2 측정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간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가 적합하게 산출되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은 요인 부하량($\lambda > 0.50$)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t값이 모두(t값=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1.965 이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각 측정변인들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인)의 다중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실제 이론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은 [Fig. 2]와 같다. 잠재변인들의 측정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부합되고 있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500)

V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M	SD
x1	1										3.418	.682
x2	.706**	1									3.528	.721
x3	.695**	.767**	1								3.692	.584
x4	.787**	.710**	.706**	1							3.466	.782
x5	.326**	.373**	.408**	.393**	1						3.828	.467
x6	.417**	.434**	.424**	.451**	.518**	1					3.410	.656
x7	.340**	.357**	.358**	.348**	.418**	.646**	1				3.300	.655
x8	.246**	.256**	.294**	.279**	.337**	.402**	.352**	1			3.580	.618
x9	.271**	.280**	.324**	.309**	.366**	.428**	.351**	.384**	1		3.547	.612
x10	.220**	.239**	.292**	.261**	.336**	.348**	.260**	.331**	.381**	1	3.661	.695

유의한 독립변인(교수핵심역량): x1(교수설계역량), x2(수업관리역량), x3(의사소통역량), x4(평가역량), 매개변인(대학생인지역량): x5(지식과사고), x6(창의성), x7(문제해결), 종속변인(대학생생애역량): x8(의사소통능력), x9(문제해결능력), x10(자기주도적학습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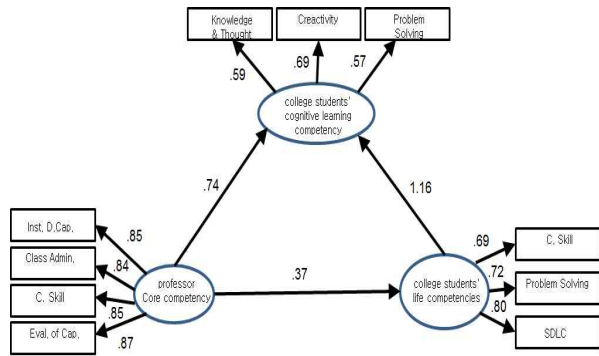
<Table 3> Fitness for a model of the index

Sort	χ^2	p	df	CFI	GFI	AGFI	IFI	TLI	RMR	RMSEA
Index ap.	875.660	.000	125	.914	.924	.923	.941	.927	.014	.070
Opt. Stand.	-	< .05	-	> .90				< .05		< .08

6.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6.1 측정모형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chi^2=950.835$, $df=127$,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χ^2 값이 사레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지수인만큼 다른 적합도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CFI: .935, GFI: .918, AGFI: .928, IFI: .935, TLI: .921, RMR: .015, RMSEA: .073)를 보여주고 있음으로서 측정모형도 자료에 적절히 합치하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Fig. 3] Path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model measures

6.2 측정모형의 경로분석 및 가설검증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매개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371($p<.001$),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739($p<.001$),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1.16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매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인들에 의하여 주요 변인들이 설명되는 변량은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54.7%, 대학생 생애역량이 86.1%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측정모형의 구조적 경로에 대한 효과 분석

측정모형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대한 변인들의 직접·간접·전체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인 교수의 핵심역량이 직접효과에서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가장 큰 효과(.739)를 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학생의 생애역량(.3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효과(.858)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생변인, 즉 매개변인인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직접효과에서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효과

<Table 4> Measurement type of load factors

Path	B	β	S.E.	C.R.
professor core competency → Inst. D.Cap.	1.000	.849	-	-
professor core competency → Class Admin.	.728	.844	.019	37.529***
professor core competency → C. Skill	.858	.853	.023	38.171***
professor core competency → Eval. of Cap.	.903	.866	.024	37.857***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 Know. & Thought	1.000	.633	-	-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 Creativity	1.648	.851	.083	19.559***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 Problem Solving	1.345	.734	.079	16.815***
life competencies → C. Skill	1.000	.732	-	-
life competencies → Problem Solving	.932	.824	.045	31.525***
life competencies → SDLC	.824	.863	.032	26.094***

*** $p<.001$

<Table 5> Fitness for a model of the index

Sort	χ^2	p	df	CFI	GFI	AGFI	IFI	TLI	RMR	RMSEA
Index ap.	950.835	.000	127	.935	.918	.928	.935	.921	.015	.073
Opt. Stand.	-	< .05	-	> .90				< .05		< .08

<Table 6> Pathway hypothesis ((SMC/R²)

Pathway hypothesis		B	β	S.E.	C.R.	
professor core competency	→	life competencies	-.273	.371	.039	-6.874***
professor core competency	→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278	.739	.017	17.639***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	life competencies	2.032	1.161	.121	16.694***
professor core competency	→	Inst. D.Cap.	1.000	.849	-	-
		Class Admin.	.728	.844	.019	37.529***
		C. Skill	.858	.853	.022	38.171***
		Eval. of Cap.	.903	.866	.024	37.857***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	Know. & Thought	1.000	.592	-	-
		Creativity	1.648	.694	.084	19.559***
		Problem Solving	1.345	.567	.080	16.815***
life competencies	→	C. Skill	1.000	.693	-	-
		Problem Solving	.932	.721	.031	31.525***
		SDLC	.824	.798	.031	26.094***

college students' cognitive learning competency SMC/R² .547(54.7%)

life competencies SMC/R² .861(86.1%)

***p<.001

(1.161)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전체효과에서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가장 큰 효과(.739)를 주고 있으며, 그 다음은 대학생의 생애역량(.4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인 즉 매개변인인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효과(1.161)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ffect breakdown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TE	D.Eff.	Ind. Eff.	path
out variable prof.r core comp.	.739	.739	-	prof. c.c → stud cog comp.
	.487	.371	.858	prof. c.c →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inner coll. stu. variable cog l.c.	1.161	1.161	-	prof. c.c → college students' life competencies

6.4 측정모형에 대한 측정변인 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대한 관련 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는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검증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역량과 관련된 측정모형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Table 8>와 같다.

<Table 8> Mediated effect between the measurement variable used model of the verification results measurement

path			Z _{ab}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rofessor core compe.	stud cog comp.	coll stud. lifecompe.	12,143***

***p<.001

<Table 8>에서와 같이 Sobel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변인 간 경로 즉 교수의 핵심역량 → 대학생의 인지역량 → 대학생 생애역량에서 매개효과(12.143***)가 있었다. 유의확률이 p>.001이므로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교수의 핵심역량과 생애역량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 7개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구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생애역량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생애역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교수의 핵심역량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대목임을 의미한다. 둘째, 교수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교수의 핵심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생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인지역량이 생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인지역량은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생애역량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수의 핵심역량을 통해 대학생들의 인지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생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생애역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교수의 핵심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교수에게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교수는 대학생에게 적극적인 촉진자 및 지원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교수의 핵심역량과 대학생의 생애역량에 인지역량의 활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학생의 성공적인 생애역량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인지역량과 교수의 핵심역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박명신·임선희(2014); 윤영남·최은수(2008); 김경숙(2006); 박수민(2011); 신승원(2011)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교수의 핵심역량, 대학생의 인지역량, 생애역량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한국교육개발원 중심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을 향상시

켜 대학생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도 필요하다. 이렇듯 교육 정책적 지원과 교수 지원 등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때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현장에서 대학생의 인지역량과 생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고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실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 내용이 인지역량과 생애역량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의 핵심역량이 대학생의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의 향상으로 대학생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학생이 인지역량 및 생애역량을 갖추는 삶을 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수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학생의 인지역량과 생애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REFERENCES

- [1] Seo-Yeon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 [2] Woo-Sup, Lim, "The Study of the Core Teaching Competency Model for the Professo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A.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 [3] Ju-Young, J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 Core Competencies to Reinforce the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 Instructive Competencies",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2, pp. 210-223, 2012.
- [4] Myeung Sin Park, Sun Hee Lim, "The Effects of the Lifelong Educators' Communication type, Competence, and Leadership on the Adult Learners' Educational Satisfaction Degree",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5, No. 1, pp. 31-54, 2014.
- [5] Seong-Hee Park, Sang-Hwak Bae, "A case study about the learning competency for students through learning portfolio",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8, No. 2, pp. 159-179, 2008.
- [6] Sang Jin Kang,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our universities :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Development, Vol. 33, No. 3, pp. 17-24, 2006.
- [7] Soo-Yeon Kim, "Teaching and learning(PBL) and explore the convergence of the Effects of the practic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109-118, 2016.
- [8] Back soon-Geun, Ham EunHye, Lee JaeYeul, Shin Hyo-Jung, Yu Ye-Lim, "A Theoretical Inquiry on the Construct for Teaching Competence in Secondary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8, No. 1, pp. 47-69, 2007.
- [9] Kyung Hee So,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5, No. 3, pp. 1-21, 2007.
- [10] Yoon-Suk, Song, "Effect of experience taking a creativity class on creativity and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A.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2012.
- [11] Kwang Woo Lee, Eun Soon Oh,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urriculum for Cultivating Students' Creativity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6, No. 1, pp. 45-68, 2012.
- [12] Catherine, S., Andragogy today: Ijac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6, No. 4, pp. 103-125, 2003.
- [13] Rychen, D. S. & Salganik, L. H. ,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DeSeCo Project. www.oecd.org/edu/statistics/deseeco, 2003.
- [14] Mi-Hee 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Vol. 7, No. 1, pp. 81-86, 2017.
- [15] Seung-Ju Kang, Eun-Ju Kim, Hae-Jin Shin, "A Effect of the Squat Convergence Exercise Among Knee Joint Angle on Quadriceps Strength in the Patients With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2016.

김 대 명(Kim, Dae Myung)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사)
- 2009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교육방법, 이러닝, 평생교육
- E-Mail : dmkim@gy.ac.kr